

포스트만의 미디어 생태학적 시각에 관한 고찰

이동후*

【요약】

이 글은 기술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믿음을 성찰해보기 위해 닐 포스트만(Neil Postman, 1931-2003)의 미디어 생태학적 시각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닐 포스트만은 미국의 교육자, 미디어 이론가, 그리고 사회평론가로서, 1968년 ‘미디어 생태학(media ecology)’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그의 미디어 생태학은 하나의 체계화된 학문적 전통에 기반을 둔 학술 분야라기보다는 언어와 미디어를 환경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을 발견하고 모여 이들의 시각에 동조하는 노력에서 출발한다. 이 글은 그가 미디어 생태학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접근했는지, 그리고 왜 그의 시각을 반기술주의(Neo-Luddism)나 미디어 결정론이라고 볼 수 없는지를 논의한다. 미디어를 환경과 메타포 개념으로 이해하는 포스트만의 미디어 생태학은 언어, 상징, 서사, 문화적 의미 등을 탈가치화하고 기계의 지성이나 기술의 효율성에 우선 가치를 두는 현재의 기술 사회에 균형주의적이고 인간주의적인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는 ‘애정 어린 저항운동가’로서 미디어 환경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의식과 행위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성찰해볼 수 있게 해준다.

【주제어】 닐 포스트만, 미디어 생태학, 미디어 환경, 메타포, 테크노폴리

* 인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 인천대학교 2009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서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끊임없이 쳐다보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2009년 말 아이폰이 도입될 무렵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은 새로운 유형의 핸드폰 기기로서 신기함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국민 75%가 쓰는 대중적 기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새롭고 낯설었던 기기가 점차 사용하지 않으면 뭔가 뒤쳐질 것 같아 반드시 구입해야할 물품이 되더니 이제는 없으면 너무도 불안한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기기를 이용하게 되면서 더 이상 그것의 기능에 대해 놀라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가끔씩 기기 이용이 가져온 부정적 효과를 병리적 현상(예를 들어, 이용 중독이나 거북목 증후군)이나 사회적 문제(예를 들어, 대화단절이나 일탈행동)로 의식해보지만, 그렇다고 기기 이용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새로운 기기와 기술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대부분 그것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놀라움과 우려라는 양극적 태도를 오가면서 그것의 이용을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인다. 또한 우리 사회는 기술이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이자 미래 사회의 성장 동력이라고 가정하면서 그것이 끊임없이 발전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대부분의 기술 담론은 기술 혁신을 통해 사회적, 산업적 혜택을 가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고, 따라서 이에 걸 맞는 사회적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연적이고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국가 전체 산업을 이끄는 인프라로 보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기초 소양 교육으로 필수화시키겠다는 정부 발표에서도 이러한 기술 담론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는 기기와 기술에 대한 양극적 태도, 새로운 기술의 필연성에 대한 믿음, 기술 발전을 사회적 진보로 보는 시각,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사회를 개조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신조 등이 팽배해있다. 그리고 빠르게 전개되는 기술 변화에 사회가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믿다보니,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대해 찬찬히 생각해볼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기술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믿음을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러한 생각의 틀을 널 포스트만(Neal Postman, 1931-2003)의 미디어 생태학적 시각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널 포스트만은 미국의 교육자, 미디어 이론가, 그리고 사회평론가로서, 25여권의 책과 수많은 글을 통해 미국 사회의 “편견, 취향, 신경증”¹⁾을 비판해 왔다.²⁾ 무엇보다 그는 1968년 미영어교육자협회의회에서 ‘미디어 생태학(media ecology)’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이러한 학문적 시각을 제시하고 대중적으로 알려는데 기여했다. 그는 미디어 생태학을 “환경으로서의 미디어에 관한 연구”라고 정의하면서 자신이 그 분야를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름만 붙였을 뿐”이라고 말한다.³⁾ 다시 말해, 그는 그동안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언어와 문화, 미디어와 문화, 미디어와 인간 등의 관계에 관심을 가져왔던 학자들을 ‘미디어 생태학자’라고 명명하면서 이들이 주목한 ‘관계’를 미디어 생태학이란 개념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따라서 그가 제시한 미디어 생태학은 하나의 체계화된 학문적 전통에 기반을 둔 학술 분야라기보다는, 언어와 미디어를 환경으로 바라보는 학자들을 발견하고 모으며 이들의 시각에 동조하는 노력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그의 미디어 생태학적 시각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학자들의 논의가 녹아들어있다. 에드워드 사피어(Edward Sapir)와 벤자민 리 워프(Benjamin Lee Whorf)의 언어학적 상대주의에서부터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 버트란트 러셀(Bertrand Russell), 루드윅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 수잔 랭어(Susanne Langer) 등의 상징 형식에 관한 철학, 알프레드 코지브스키(Alfred

1) Postman(1995), 62.

2) 포스트만은 25여권의 책을 단독 혹은 공동으로 쓰거나 편집했다. 이중 13권의 책은 단독으로 저술했고, 10권의 책은 공동으로 저술했으며, 2권의 책은 공동으로 편집했다.

3) Postman(1970), 161.

Korzybski)와 사무에 이치에 하야카와(Samuel Ichiye Hayakawa)의 일반 의미론, 에드워드 홀(Edarward Hall), 에드먼트 카펜터(Edmund Carpenter), 마셜 매클루언(Marshall McLuhan), 해롤드 이니스(Harod Innis) 등의 미디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 그리고 루이스 머포드(Lewis Mumford)와 자끄 엘룰(Jacques Ellul)의 기술 사회에 대한 문명사적 이해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여러 학자들의 시각이 ‘미디어 생태학’이라는 울타리 안에 적극 포섭되었다.⁴⁾ 특히 포스트만은 컬럼비아 대학 교육대학 대학원생 시절에 접했던 매클루언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교육학자였던 포스트만은 매클루언의 미디어 이론에 영감을 받아 영어교육과정에 관한 언어학적, 의미론적 관심을 넘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기술에 관한 문명사적 관심을 갖게 된다.⁵⁾

포스트만이 ‘미디어 생태학’이란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는 ‘사피어-워프-코지브스키-에임스-아인슈타인-하이젠버그-비트겐스타인-매클루언 등의 가설’이란 용어로 자신의 미디어 생태학적 시각을 표현한 바

4) Strate(2014).

5) 포스트만은 거의 모든 저서에서 매클루언을 언급했을 정도로 매클루언의 미디어 이론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어, 대표적 저서인 『죽도록 즐기기』(1985)에서도 30년 전 자신이 대학원시절에 매클루언을 만나 “문화를 꿰뚫어 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그것의 상호 작용의 도구를 살피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배웠다고 회고한다. 심지어 그는 미디어 생태학이란 용어를 1968년 미국영어교사협회 연례회의에서 자신이 처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클루언이 처음 사용했다고 기억한다(Postman, 2006). 그 근거가 1972년 이후에 매클루언이 클래어 부스 루스에게 썼던 편지였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포스트만이 매클루언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나, 그를 단순히 매클루언의 추종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매클루언은 미디어 환경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객관적 자세를 취한 반면, 포스트만은 미디어 환경에 대한 관찰에서 머물지 않고 이에 따른 문자 문화의 쇠락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포스트만은 매클루언의 사상에 존경을 표하면서도, 매클루언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대중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현재의 미디어 기능에 맞게 바꾸고 단문화”시키고 있어서 “전 자시대의 추장자”로 보일 수 있다고 암묵적으로 비판한다(Postman, 1969, p. 7). 포스트만은 미디어 문화에 대한 중립적 논평이나 ‘이해’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미국의 문화적 균형을 위해 활자 문화유산을 보전해가자고 주장한다.

있다. 그는 이러한 가설을 통해 미디어를 포함한 “언어가 단순히 표현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동인(動因)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언어 과정에 의해 우리가 지각하고 배울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⁶⁾ 여기서 그는 미디어를 새로운 언어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새로운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였던 텔레비전을 어떻게 영어 교육에서 받아들일지를 고민하면서 점차 미디어 기술 전반으로 관심을 확대시켜나갔다. 젠카렐리⁷⁾에 따르면, 포스트만의 학문적 세계는 『죽도록 즐기기(Amusing ourselves to death)』(1985)를 썼던 시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 그리고 초기의 교육적, 인문학적 관심으로 돌아갔던 말기 등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⁸⁾ 초기 단계(1966~1976)에서 포스트만은 영어 교육, 언어학, 의미론 등에 관심을 가지며 미디어 생태학적 시각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 단계(1979~1985)에서는 미디어 생태학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며 환경으로서의 텔레비전이 갖는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고찰했으며, 세

6) Postman(1969), 101.

7) Gencarelli(2006).

8) 첫 번째 단계에는 『언어학: 교육의 혁명(Linguistics: A revolution in teaching)』(1966), 『전복 활동으로서의 교육(Teaching as a subversive activity)』(1969), 『부드러운 혁명: 학교를 바꾸기 위한 교육 안내서(The soft revolution: The student handbook for turning schools around)』(1971), 『학교: 불평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The school book: For people who want to know what all the hollering is about)』(1973), 『미국의 언어: 악화된 상징 환경에 관한 보고서(Language in America: A report on our deteriorating semantic environment)』(1969),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리석은 이야기(Crazy Talk, Stupid Talk)』(1976) 등의 저서가 포함되고, 두 번째 단계는 『보존 활동으로서의 교육(Teaching as a conserving activity)』(1979), 『유년기의 소멸(The disappearance of childhood)』(1982), 『죽도록 즐기기(Amusing ourselves to death)』(1985)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 단계는 『양심적인 반대(Conscientious objections)』(1988)와 『TV 뉴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How to watch TV news)』(1992)와 『테크노폴리: 기술에 정복당한 문화(Technopoly: The surrender of culture to technology)』(1992)가 포함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교육의 종말(The end of education)』(1996)과 『18세기에 다리 놓기(Bridging to a bridge to the 18th century)』(1999)가 포함된다.

번째 단계(1988~1992)에서는 미디어 생태학적 시각으로 미국의 기술 문화 전반의 특성을 비판했고, 마지막 단계(1996~1999)에서는 교육 문제와 계몽주의시대의 유산을 논의하면서 현재의 기술 문화에 대한 대안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포스트만은 교육 환경과 언어 상징 환경에서 미디어 기술 환경 전반으로 논의의 대상을 확대시켜나가면서 교육의 문제, 유년기의 사회적 구성, 텔레비전 담론의 오락적 특성, 기술 문화의 지배, 계몽사상의 재발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고, 또한 기술 지배 사회의 도래가 어떻게 종교와 인문주의적 전통과 같은 우리 사회의 ‘대서사(great narratives)’를 파괴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논의한다.

이 글은 포스트만의 사상 전반을 포괄적으로 혹은 연대기적 다루거나,⁹⁾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그의 사상적 맥락을 살피려는데¹⁰⁾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그의 생각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의 시각이 다른 미디어 생태학자들의 시각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를 갖는지, 혹은 그의 연구 전반에 어떠한 주제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는지 등을 정리하려는데 있지 않다. 대신 그가 제시했던 미디어 생태학적 시각을 정리해보면서 과연 그가 말한 미디어 생태학적 시각이란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함의를 가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포스트만이 말한 미디어 생태학에서 ‘생태학’이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러한 생태학적 시각을 적용하기 위해 그가 취했던 접근 방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연 그는 반기술주의자(Neo-Luddite)이거나 미디어 결정론자인지 등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 글은 그가 말한 미디어 생태학 개념을 재고해봄으로써 현재의 기술 문화에 관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질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9) Gecarelli(2006).

10) Strate(2014).

II. 포스트만의 미디어생태학적 시각

1. 메타포로서의 미디어 생태학

1968년 전미영어교육자협의회에서 발표된 글은 『고등학교 1980(High school 1980)』(1970)이라는 책에 “개정영어교육과정”이란 이름의 장으로 실리게 된다. 포스트만은 미디어 생태학을 기존 고등학교 영어를 대체하는 “개정영어교육과정”으로서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가 인간의 지각, 이해, 느낌,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미디어와의 상호작용이 우리의 생존 기회를 어떻게 촉진하거나 방해하는지”를 연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¹¹⁾ 그는 미디어 생태학이 이론이나 철학적 가설이 아닌 새로운 교육과정이라는 실천적 의미를 가진 탐구분야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각은 이듬해 나온 “미디어 생태학 박사 과정 설립계획서”¹²⁾을 제시하는 글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미디어 생태학이 “사람들과 그들의 메시지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이고, 미디어 생태학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공적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가능한 많은 독자들에게 소통”시킬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교육과정이라고 말한다.¹³⁾ 포스트만은 미디어 생태학을 ‘개정영어교육과정’ 혹은 ‘미디어생태학박사과정’ 등 실천적 의미를 갖는 교육 분야이자 새로운 탐구분야로 구체화 해나가면서, ‘생태학’이란 메타포를 통해 언어와 미디어의 문제를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공기와 물이 오염된 경우처럼, 언어 오염의 위협은 쓰레기양이 증가하

11) Postman(1970), 161.

12) Postman(1971).

13) Postman, Ibid., 139.

는 만큼 늘어간다. 맑은 시냇물에 방뇨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자신의 무식함을 감추고 속이며 표현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 있어왔다. 시냇물은 일정 정도의 오수를 허용하고 흡수하며 심지어 유익하게 이용하도록 바꿀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의미론적 환경도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특정한 량을 넘었을 때, 쓰레기는 생태적 불균형을 만든다. 환경에 내재된 생존 전략이 소용없게 된다. 그것이 병들고 쓸모없어진다.(1969, p. 14)

포스트만은 상징적 언어의 오용과 남용 문제를 공기, 물, 오염, 쓰레기, 생태적 불균형, 환경, 생존 등 생태학적 용어를 통해 은유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생태적 불균형”이란 메타포는 언어가 현실을 제대로 기술하지 못하고 그 의미를 맥락에 맞게 담아내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를 암시한다. 또한 의미를 잃게 만드는 언어들은 의미론적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의 균형을 위협하는 “쓰레기”에 비유된다. 포스트만은 언어와 같은 상징의 세계를 자연 환경에 빗대어 기술함으로써 그것이 갖는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언어의 상징 환경은 유입된 쓰레기나 오염 물질에 대해 어느 정도 내성을 가지지만 균형이 깨졌을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 자연 환경과 같다. 특히 전자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그동안 가시적이지 않았던 ‘허튼 소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이와 함께 사회의 언어적 정화력이 떨어졌다고 보았다. 따라서 포스트만은 새로운 미디어가 언어가 가진 상징적 의미의 세계를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 진단했고, 변화하는 상징 환경의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 미디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여기서 미디어는 도구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는 기계나 기술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문화가 커가는” 환경으로 정의된다.

상징 환경의 변화는 자연환경의 변화와 같다. 물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그것은 점진적이고 부가적이다가 한순간 임계량에 도달한다. 서서히 오염되던 강이 갑자기 독성을 갖게 되고 대부분의 고기가 죽게 되며 수영하는 것이 건강에 위협해진다. (중략) 나는 전자미디어가 우리의 상징 환경의 성격을 결정적이고 되돌릴 수 없게 바꾸면서 임계량에 도달했다고 본다. (Postman, 1985, p.28)

여러분은 세균 배양용 접시에 관해 처음 배웠을 때 미디어를 배양균이 자라나는 물질로 정의했다고 기억할 것이다. ‘물질’이란 단어를 기술로 바꾼다면, 그 정의는 미디어 생태학의 기본 원칙이 될 것이다. 미디어는 그 안에서 문화가 커가는 기술이다. 다시 말해, 한 문화의 정치, 사회적 조직, 습관적 사고방식 등이 형성된다. 그런 생각과 함께 우리는 또 다른 생물학적 은유, 즉 생태학이라는 은유를 가져왔다. (중략) 우리는 ‘생태학’이라는 단어 앞에 ‘미디어’라는 단어를 붙임으로써, 미디어뿐만 아니라 미디어와 인간의 상호작용이 문화의 특성을 구성하고 문화의 상징적 균형을 돕는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했다.¹⁴⁾

포스트만은 텔레비전이 부적절하고 과편화되고 피상적인 정보를 제공하면서 무엇을 알고 있다는 환상을 주지만 실제로는 아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릇된 정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게 텔레비전과 같은 미디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적 사고방식”과 “정치와 사회적 조직”을 구조화시키는 환경이다. 다시 말해, 미디어는 물리적 기기 그 자체가 아니라 “기계가 창조해내는 사회적이고 지적인 환경”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은 “특정한 상징적 코드를 사용하고 특정한 사회적 상황 속에 자리 잡으면서 경제적, 정치적 맥락에 스며들어갈 때” 생겨난다.¹⁵⁾ 즉, 기술의 물질적, 상징적 특성에 따라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환경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과 접합되고 사람과 문화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형성되는 환경이다. 포스트만은 이러한 ‘환경으로서의 미디어’가 어떻게 우리의 사회적 경험이나 인식론적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메타포로서의 미디어’ 개념을 제시한다.

14) Postman(2006), 62.

15) Postman(1985), 84.

각각의 미디어는 사고, 표현, 감수성의 새로운 지향을 제공함으로써 독특한 담론 양식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물론 매클루언이 ‘미디어는 메시지’ 라고 말하면서 의미했던 바이다. 그러나 그의 경구는 메시지와 메타포를 혼동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 메시지는 세계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서술을 뜻한다. 그러나 교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상징을 포함한 우리 미디어 형식은 그러한 서술을 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차라리 메타포처럼 야단스럽지 않지만 강력한 함축 작용을 통해 현실에 대한 특수한 정의를 강화해나간다. (중략) 우리의 미디어-메타포들은 우리를 위해 세계를 분류하고, 순서를 배열하고, 틀지우고, 확대하고, 축소하고, 채색하고, 세상이 무엇과 같은지를 변론해준다.(Postman, 1985, p.10)

포스트만은 매클루언이 말한 “메시지”라는 표현이 어떤 사실을 알리는 구체적인 서술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메타포”로 대신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의 메타포는 어떤 것을 다른 무엇에 비유함으로써 그것이 무엇과 같은지를 암시하는 힘을 가졌다는 뜻을 가지는데, 포스트만은 이러한 용어 사용을 통해 세상에 대한 지각적, 인식론적 렌즈의 역할을 하는 미디어의 힘 혹은 “지향”을 주목하고자 했다. 메타포로서의 미디어는 우리의 경험과 이해가 특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돕기 때문에, 이러한 미디어의 지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의 상징적, 물리적 형식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포스트만은 각각의 미디어가 서로 다른 상징적, 물리적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특정한 방식으로 지각하고 인식하게 만들며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특정 감각, 능력, 태도를 더 증폭시키는 성향이 배태되어 있다”고 주장한다.¹⁶⁾ 그는 이러한 성향을 미디어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이라고 부른다.

포스트만은 미디어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이해하는 “담론의 구조”를 바꿈으로써, 그 안에 전달되는 내용이나 그것을 수용하는 방식,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화적 사고방식을 바꾸는데 일조한다고 본다.¹⁷⁾ 따라서 각각의 미디어

16) Postman(1993), 13-14.

어는 자신만의 의제를 전달하는 인식론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활자 미디어는 사건과 생각을 일관성을 가지고 질서정연하게 배열하는 담론의 구조를 제공하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모순을 싫어하는 사고방식을 부추겼고 이에 따라 활자 문화의 수용자는 “설명의 시대”에 살았다고 본다. 반면 활자 문화에 전신과 사진이 도입되면서 “파편화되고 상관없는 정보를 의견상 용도가 있게 해주는”¹⁸⁾ 담론의 구조가 선호되기 시작하였고 설명의 시대의 논리적 언어는 즉각적이고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¹⁹⁾ 시각이미지에 밀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텔레비전이 널리 이용되면서 모든 정보를 오락이나 일관성이 없는 파편적 불거리로 포장하는 담론의 구조가 지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과 방식이 변화했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미디어의 편향성이 미국의 정치, 뉴스, 교육, 종교, 과학, 스포츠 등 모든 문화 내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²⁰⁾

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는 전통적으로 미디어를 메시지를 주고받는 채널²¹⁾로써 인식하였고, 따라서 미디어란 용어는 주로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신문, 잡지, 책 등과 같이 특정 유형의 내용을 담아내는 대중매체를 언급하거나 언론을 지칭할 때 쓰였다. 하지만 포스트만은 미디어를 메타포로 보면서 도구로서의 미디어 기능이나 그것이 전달하는 내용보다는, 미디어 자체의 상징적, 물리적 특성과 담론 구조의 성격, 그리고 인식론적,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주목한다. 또한 현대 사회의 특정 대중매체에만 관심을 제한시키기 보다는 인간커뮤니케이션 역사 전반을 조망하며 환경으로서의 미디어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했다. 포스트만은 언어 상징과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뿐만

17) Postman(1985), 26.

18) Postman, Ibid., 76.

19) Postman, Ibid., 72.

20) Postman, Ibid..

21) Shannon & Weaver(1949).

아니라 통계와 IQ 조사와 같이 비물질적인 기법이나 방법도 미디어 환경에 포함시킨다. 포스트만에 따르면, 우리가 특정한 필요에 의해 도구를 만들었지만 이러한 도구(모든 형식의 기술, 기법, 방법 등)는 우리가 현실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미디어는 사물이라기보다는 편향성을 지닌 매개의 과정이자 인간의 문화가 자라나는 터전이라고 볼 수 있다.

2. 방법론으로서의 질문하기

포스트만의 미디어 생태학적 시각은 텔레비전이 등장과 함께 언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교육, 정치, 종교 등 공적 분야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영어교육학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데서 출발했다. 따라서 언어와 미디어 형식이 우리의 담론 구조와 사고방식 그리고 문화적 내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매클루언식의 미디어의 ‘이해’에서 그치기보다는 “인간 커뮤니케이션 형식과 문화의 질(quality)간의 관계”²²⁾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포스트만은 “불만이 모든 흥미로운 산문의 원천”²³⁾이라고 말하면서, 기술의 가능성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현대 미디어 환경에 대해 불만을 가지라고 권고한다. 그는 전신과 사진, 텔레비전,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 등으로 이어지는 정보 환경을 시각적 이미지, 불연속성, 직접성, 비논리성 등을 강조하는 반역사적이고 반이성적인 정보환경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정보 환경이 기술화에 최고 권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종교적, 철학적 편향의 맥락에서 성장해갔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정보환경에서 그동안 인간의 확장이라고 여겨졌던 우리의 기체가 오히려 본체가 되고 “인간이 ‘기체의 확장’이 되는“ 주객전도가 일어나고, 우리는 기꺼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기체

22) Postman(1985), 9.

23) Postman(1988), xi.

에게 넘겨주고“ 있다는 진단을 내린다.²⁴⁾ 그의 미디어 생태학적 시각에는 기술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고 열광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그렇다면 그는 미디어 생태학이 어떻게 연구될 수 있다고 보았는가?

포스트만이 미디어 생태학적 방법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사회과학을 “도덕적 신학”이라고 몰아붙이는 그의 글을 통해²⁵⁾ 미디어 생태학자는 어떠한 방법론적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읽어 볼 수 있다. 그는 사회 연구와 인문학까지 침범하는 양적 실증적 연구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특히 사회 과학이 ‘과학적’이라는 전제에 이의를 제기한다. 그는 자연과학의 가정과 절차를 그대로 가져와 사회와 인간 행위 및 경험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터무니없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1960년대 초 이루어진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 연구가 이러한 터무니없는 믿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밀그램은 일반 주민을 데려와 모르는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게 하는 실험을 실시하는데, 실험 참여자 중 65%가 실험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 충격기의 전압을 올리면서 자신의 양심보다는 실험자의 권위에 복종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포스트만은 이러한 ‘사회과학적’ 연구 결과가 인간 본성에 관해 뻔한 결론 이상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지’, ‘권위가 언제 합법적이고 언제 비합법적일 수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하는지’, ‘언제 복종하는 것이 옳을 수 있는지 혹은 잘못될 수 있는지’ 등 진짜 중요한 질문에는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포스트만은 소위 ‘사회과학’이 인위적으로 세분화, 전문화된 분석 범주와 조사 방법론에 공을 들이고 있고, 그러다보니 소수 전문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유사 과학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담론은 인간 삶의 실제 맥락이나 목적과 동떨어진 정보를

24) Postman(1979), 100.

25) Postman(1988).

생산해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포스트만은 양적, 실증적 사회과학 연구의 문제가 과학적 객관성을 추구하는 분석적 접근만을 궁극적 진실의 근원이자 도덕적으로 신뢰할만한 유일한 출처라고 믿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았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실제 삶의 문제에 대해 도덕적 질문을 던지지 못하고 공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질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 연구의 목적이, 더 나아가 미디어 생태학의 목적이 다음과 같아야 된다고 기술한다.

사회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삶의 진실을 발견하고, 사람들의 도덕적 행동에 논평하고 비판하며,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와 품위를 가지고 살도록 도울 수 있는 메타포, 이미지, 아이디어 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특히 미디어 생태학의 목적은 기술의 결과에 관한 이야기, 다시 말해 미디어 환경이 우리의 사회적 삶을 생각하거나 조직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맥락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우리를 더 낮게 하는지 더 나쁘게 하는지, 더 똑똑하게 하는지 더 멍청하게 만드는지, 더 자유롭게 하는지 더 노예로 만드는지 등을 말하는 것이다 (Postman, 1988, p. 18).

미디어 생태학자는 사회와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서술자(narrator)’이기 때문에, ‘어떻게 연구 방법론을 정교화 시킬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의식이 된다. 포스트만은 이러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기 위해 질문을 잘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지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은 어떻게 생산적인 질문을 하는가를 배우는 데서” 출발하고, 잘 만들어진 질문은 새로운 사실, 새로운 시각, 새로운 생각을 이끌 수 있다고 보았다.²⁶⁾ 특히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미디어 환경의 ‘신화’(바르트 식의 신화 개념) 혹은 ‘마력’을 해체해보기 위해서는 ‘질문하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²⁷⁾ 그에 따르면 ‘학생들이 교과서 보다 컴퓨터로 수학을 더 잘

26) Postman(1979), 153-154.

27) Postman(1985), 161.

배울 것인가’, ‘어떤 미디어를 통해 더 많은 상품을 팔 수 있을까’, ‘라디오보다 텔레비전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등의 질문은 “우리의 주의를 새로운 미디어가 조성하는 사회적, 지적, 제도적 위기에서 벗어나 탄 데로 쏠리게” 하기 때문에 좋은 질문이 아니라고 본다.²⁸⁾ 이것은 ‘테크노폴리’(technopoly)라는 효율성과 흥미를 추구하는 기술지배문화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에 동조하는 질문으로서, 테크노폴리가 작동하는 원리와 효과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이들 지배에 종속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포스트만은 ‘미디어가 무엇을 수월하게 만들고 향상 시키는가’라는 도구적 효율성에 대해서가 아니라 ‘왜 미디어를 받아들이고 이용해야 하는가’라는 목적에 대한 질문, 혹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종교, 정치, 교육 등 기존 전통이 가졌던 의미가 어떻게 위협을 받고 있는지’와 같은 의미론적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렇게 비가시적인 미디어 환경의 원리와 효과에 관해 의식해보는 질문은 일련의 간단한 질문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는 여러 저서에서 이러한 질문의 사례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이 기술이 답이 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누구의 문제인가’, ‘이러한 기술적 해법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유형의 사람과 기관이 경제적, 정치적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새로운 기술에 의해 언어상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가’, ‘이러한 변화에 의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 수 있는가’ 등의 일련의 질문을 통해 기술이 미치는 영향력의 함의를 기술의 도구적 차원을 넘어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²⁹⁾ 더 나아가 그는 미디어 환경 변화가 갖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 관한 질문을 서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디어가 합리적인 사고의 활용과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 ‘민주적 과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가’, ‘의미 있는 정보에 더 잘 접근하게 해주는가’, ‘우리의 도덕적 감각이나 윤리적

28) Postman(1993), 19.

29) Postman(1999), 42-53.

역량을 어느 정도 향상 시키는가’ 등을 질문한다.³⁰⁾ 포스트만은 도덕적 혹은 윤리적 맥락에서 미디어를 연구하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보면서, 미디어 환경의 인간주의적인 혹은 반인간주의적인 결과에 대해 통찰해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지라고 제안한다. 그는 미디어 생태학의 핵심이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 살아나가고 선택한 인생행로에서 어떻게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통찰력을 높이는데 있다”고 말한다.³¹⁾ 따라서 미디어 생태학은 미디어 환경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인간적 이해와 품위에 기여”하고 “사회적 삶을 향상시키는” 의미 있는 서사를 찾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³²⁾ 포스트만이 제시하는 미디어 생태학적 접근 방법은 미디어의 효과를 수치로 측정하고 그것의 신뢰도, 타당성, 객관성을 검증하려고 애쓰기 보다는, 미디어 환경이 우리 삶과 사회에 갖는 의미를 생각해보는 성찰적 질문을 만들고 답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답을 구하는 과정은 엄밀한 ‘과학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질문과 관련하여 우리가 읽고 경험하고 관찰하고 이해해본 것을 학문적 상상력과 함께 해석해 가면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만이 말하는 미디어 생태학자는 사회과학의 제도화된 글쓰기 관습에 기대지 않는 비주류의 위험 부담을 안고 있지만, 인간주의적 통찰력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서사를 만들어가며 기술 사회에서의 인간적 삶의 질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

30) Postman(2006), 65-67.

31) Postman(2006), 69.

32) Postman(1988), 17-18.

III. 포스트만을 둘러싼 의문들

1. 포스트만은 네오-러다이트(Neo-Luddite)인가?

19세기 초 기계가 자신들의 임금과 일자리를 빼앗아갔다고 생각한 영국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고 공장을 방화하는 기계파괴운동을 벌였다. 자신들의 불운을 기계의 탓으로 돌렸던 이들을 일컫던 ‘러다이트’란 용어가 20세기 중반부터 기술 발전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며 저항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네오-러다이트’로 불리는 이들은 기술낙관주의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기술의 영향력이 전통의 파괴와 인간성의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스티븐은 포스트만을 90년대 첨단 기술에 불안과 의심의 시선을 보내는 대표적인 네오-러다이트의 한명으로 언급하고 있다.³³⁾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포스트만이 스스로 ‘나는 기술을 반대하는 러다이트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고 반복해서 말한다. 그는 “우리가 기계를 금지하거나 부수서 얻는 것은 혼란뿐”이고³⁴⁾ 러다이트처럼 기술에 반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기술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음식에 반대하는 것과 같다. 살면서 음식이 필요하듯이 기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과식하면, 혹은 영양가가 없는 음식을 먹으면, 혹은 병든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생존 수단은 그 반대가 된다. 기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술이 삶을 향상시키거나 약화시킬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에 어느 철학자도 반박하지 않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물을 수 있다. 어떤 것이냐고. 오직 바보만이 그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태평하게 모든 기술을 환영할 것이다 (Postman, 1999, p. 44).

포스트만은 기술을 무조건 반대하거나 무조건 환영하는 것을 모두 피해야

33) Steven, J.(2006), 24.

34) Postman(1979), 101.

한다고 말한다. 기술의 필요성을 부정하지만 불가피하다고 보지 않고, 또한 기술이 인간에게 도덕적, 사회적, 심리적 진보를 가져다주는 축복이라는 시각도 버린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극단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부터 인식론적 그리고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기술을 낯설게 바라보는 것이다. 그는 기술이 “특정 경제적, 정치적 맥락의 산물이고, 삶을 향상시키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프로그램, 의제, 철학을 수반하기에 철저한 검토, 비판, 제어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³⁵⁾ 미디어 생태학적 시각은 지나친 비판론과 낙관론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미디어 발전을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균형이란 중립적 태도가 아니라 효과 전체를 고려한 저울질을 암시한다. 포스트만은 플라톤의 파이드로스(phaedrus)에 나오는 이집트의 태무스 왕처럼 “기술적 겸손함을 가진 사람”, 혹은 “양가적 위치에서 이해와 해석 그리고 의미를 만들어나가는” 기술적 회의론자가 되라고 제안한다.³⁶⁾ 태무스 왕은 숫자, 계산, 기하학, 천문학, 문자 등을 발명한 수스 신이 자신의 문자가 이집트 사람들의 기억과 지혜를 향상시켜줄 것이라고 말하자, 문자를 이용함으로써 “기억력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고 잘 잊어먹게 될 것”이며, “문자에 의존하면서 자신의 내부 자원 대신 외부 기호를 통해 사물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³⁷⁾ 무엇보다 태무스 왕은 발명가 스스로가 자신의 발명품이 가져올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잘 판단할 수 없다면, 기술의 효과는 눈에 보이는 기술의 도구적 기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복합적으로 생겨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포스트만이 말한 균형주의적 시각이란 발명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를 논의하고 그것의 혜택과 대가를 비교하며 그것의 함의를 이리저리 헤아려보는 과정 속에서 형성된다. 예를 들어, 포스트만은 텔레비전이 나이든 사람, 병약자, 혼자 있는 사람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35) Postman(1993), 185.

36) Postman, Ibid., 122.

37) Postman, Ibid., 4.

주고 전쟁이나 인종차별주의에 대항하는 정서적 힘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것이 가진 가치를 부정하진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주는 것이 있으면 가져가는 것이 있는 “상충효과(trade-off)”가 있게 마련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에 있어 주는 것과 가져가는 것의 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디어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균형 상태를 만들지 않고 때론 파괴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창조하고, 때론 그 반대가 되기도 한다고 한다. 포스트만이 인쇄술을 옹호하는 이유는 그것이 손실보다 이득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텔레비전에 대해 좀 더 비판적인 이유는 그것이 공적 담론의 가치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어서 이득에 비해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디어 생태학자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개관하고 대조하면서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이해해보고자 했다. 맴포드(1934)는 원기술, 구기술, 신기술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했고, 매클루언(1964)과 웅(1982)은 구술성과 문자성 그리고 전자미디어 문화를 대조시켰다. 포스트만은 활자문화와 텔레비전 문화를 대조하면서, 우리의 미디어 환경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무엇을 얻고 잃는지를 논의한다. 포스트만의 미디어 생태학적 시각은 미디어 환경이 문화에 가져오는 혜택과 대가를 저울질하고, 더 나아가 균형 맞추기를 지향한다. 예를 들어, 미국이 새로운 전자 미디어 환경에 적응해가는 1960년대에는 학교가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전복적’ 교육을 제공해야한다고 보았고, 전자 미디어가 문화를 지배하게 되는 1970~80년대에는 학교가 사라져가는 인쇄문화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떠한 미디어 환경이 지배하는가에 따라, 그리고 미디어 환경이 어떠한 상충효과를 갖게 하느냐에 따라, 기존 미디어 전통에 대해 전향적 태도 혹은 수구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미디어 환경의 변화 정도와 성향에 따라 달라지고 조절될 수 있다. 물론 포스트만은 스스로를 “애정 어린 저항운동가 (the loving resistance fighter)”³⁸라고 부른다. 현재의 미국을 테크노폴리의 사회라고 진단하기 때문에, 기술 지배적 미디어 환경에 위협을 받는 언어

상징과 서사를 보호하는 ‘언어 옹호자’의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다.³⁹⁾ 이렇게 언어 상징과 서사의 의미를 중시하는 인간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그의 입장을 네오-러다이트라는 기술반대론자로 묶어버린다면, 그의 미디어 생태학적 시각이 가진 뉘앙스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는 기술반대론자라기 보다는 기술 회의론자다. 기술 환경이 갖는 양가적 결과, 특히 기술의 예기치 않던 결과와 대가에 주목하면서 기술 변화에 보조는 맞추되 휘둘리지 말라고 제안한다. 특히 기술이 문화를 독점하고 도구적 효율성이 지배적 가치로 군림하는 지금의 시대에 기술 발전을 외면하거나 싸잡아서 혐오하기보다는 기술의 혜택과 대가 사이를 저울질하면서 비인간적 기술화의 경향에 저항하는 길을 찾아보라고 조언한다.

2. 포스트만은 미디어결정론자인가?

샌들러(Chandler, 2000)에 따르면 미디어 결정론은 미디어가 “우리가 사고하고 행동하는 방식, 대인 관계를 맺는 방식, 우리의 가치, 배우는 방식 등 행동과 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것들의 형태를 정하고 바꾼다는 사상”이다. 이러한 정의를 따를 때, “기술 이용이 기술 자체의 구조에 의해 결정”되고 “그것의 기능이 그것의 형식을 따른다”고 말한 포스트만은⁴⁰⁾ 미디어 결정론자이다. 그는 기술의 구조와 가치가 우리의 행위, 언어, 사고 등을 지배하고 조절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의 논의에는 미디어와 기술이 종종 주어로 등장한다. “알파벳은 상형문자를, 인쇄기는 채색한 원고를, 사진은 회화 예술을, 텔레비전은 인쇄어를 공격한다”⁴¹⁾라는 글에서 보듯이, 미디어가 의인화된 주체로서 서로 싸우고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킨다. 또한 미디어는 상징

38) Postman(1993), 181.

39) Strate(1994); Strate(2003).

40) Postman(1993), 7.

41) Postman, Ibid., 16.

환경을 쓰레기로 오염시키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미디어를 의인화하고 자율적인 주체로 기술하는 것을 보면 포스트만이 미디어결정론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다분히 그의 글쓰기 스타일과도 관련되어 있다. 그는 자신을 “엄청난 생략자(great abbreviator)”⁴²⁾라고 언급하면서 자신이 미디어 생태학적 시각을 명료하고 간결한 스타일로 표현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한다. 각주와 참고 문헌을 꼼꼼하게 챙기면서 학술적 논점을 복합적으로 심화시키는 글이 아니라 하나의 수필처럼 예시와 함께 미디어 환경의 성격과 문제를 포괄적이고 대략적으로 짚어가는 글을 쓰고 있기에, 그의 주장은 미디어 결정론으로 낙인찍히기가 쉽다. 하지만 포스트만이 이렇게 미디어의 영향력을 알기 쉬운 일화와 함께 단순화시켜 표현하고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미디어 생태학적 문제의식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환기시키기 위한 일종의 수사적, 교육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그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를 넘어 의미 있는 서사를 찾아나서는 공적 지식인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하고자 했기에 그의 미디어 담론은 학술적으로 엄밀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그런데 그의 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디어 환경이 인간과 문화를 규정하는 일방적 결정자가 아니라 상호 관계 속에서 그것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의사는 단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⁴³⁾라는 표현에서처럼, 포스트만은 인간이 기술을 이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이용에 의해 자신의 경험, 지각, 행동 등이 재구성되고 있음을 환기시키고 있다. 우리가 특정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스스로를 행위자로 인식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이용 과정 속에 미디어가 행위자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테크노폴리의 기술은 물리적, 절차적 도구로서의 기술이 아니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자본주의 사회 체제와

42) Postman(1985), 6.

43) Postman(1993), 105.

기술 이데올로기가 함께 녹아들어있는 기술 체계인 것이다.⁴⁴⁾ 결국 미디어 환경이 실제 구현되는 과정 속에는 미디어 이용자, 미디어 기술, 기술 사회 체제 등이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 연결성을 고려할 때, 테크노폴리의 기술지배사회는 기술에 의해 결정된 효율성의 체계를 지향하기는 하나, 좀 더 인간적이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로 바뀔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다. 포스트만은 우리가 미디어 환경을 탈신화화해가면서 인간적 통제력과 행위성을 가져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보의 구조와 효과에 대한 깊이 있고 한결같은 의식 그리고 미디어의 탈신화화를 통해서만,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혹은 그 밖의 어떤 미디어 이진 간에, 이들에 대해 어느 정도 통제력을 가져볼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이러한 미디어에 대한 의식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까(Postman, 1993, p. 161).

포스트만은 특히 학교 교육을 통해 미디어에 대한 통제력 갖기를 희망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학교는 사회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전통을 보전할 수 있는 곳으로서, “문화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위해 주장을 제안할 수 있는 유일한 대중 매체”⁴⁵⁾이다. 학교에서는 미디어 신화에 대해 질문해보며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인쇄문화의 전통을 검토하며 보존할 수 있다. 포스트만은 학교가 세상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취업을 준비시킨다든지 혹은 새로운 미디어 언어 교육을 시킨다든지 등을 하는 것은 알팍한 교육 철학에 기반을 둔 교육 공학이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학교는 활자문화의

44) 이러한 포스트만의 기술 개념은 엘룰의 ‘테크닉’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엘룰은 테크닉을 “최고의 효율성을 주는 기술을 위한 결정만을” 하는 체계, 세계관, 삶의 방식이라고 정의한다(Ellul(1964), 80). 포스트만은 『죽도록 즐기기』를 쓸 때까지만 해도 기술을 미디어와 구분되는 이용의 대상이나 물리적 실체로 언급했으나, 이후 문화적, 도덕적 가치를 압도하는 일종의 권력 체계로서 바라본다.

45) Postman(1979), 22.

전통적 가치를 고수하며 미디어 환경의 불균형의 문제를 고민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스트만이 보기에 진정한 “기술 교육”은 프로그래밍을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와 다른 기술들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는 가를 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기술 교육 과목은 테크닉을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라,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심리적 습관, 사회적 관계, 정치적 사상, 도덕적 감수성을 재정리하는지”, “새로운 기술이 문화에 침범하면서 정보와 교육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구술 문화, 문자 문화, 인쇄문화, 전자문화에 따라 진리, 법, 지성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공부하는 인문학의 분야이다.⁴⁶⁾ 포스트만이 학교 교육을 통해 기술 변화의 의미를 검토하고 전통과 인간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미디어 환경의 통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미디어 결정론자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왜냐하면 미디어가 우리의 사고, 지각, 행동, 가치, 사회적 삶 등의 형태를 결정한다는 결정론에는 이러한 희망과 믿음, 그리고 이를 추구하는 인간적 노력이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이다.

IV. 포스트만식 미디어 생태주의의 함의

1. 메타포로서의 미디어 생태학의 도전

포스트만은 환경을 연구하는 ‘생태학’을 하나의 메타포로 가져와 미디어 기술 환경이 우리가 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하고자 했다. 포스트만의 미디어 생태학은 미디어를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반쯤 가려져있고” “암시적이고” “비공식적인” 미디어 환경의 구체적인 여건을 명료하게 드러내고자 했다.⁴⁷⁾ 그는 환경으로

46) Postman(1995), 191.

서의 미디어에 관심을 가지며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우리의 경험과 인식과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았다. 그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 종교, 문화, 공공담론, 정치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논의했고 특히 의미의 해체를 주도하고 대서사를 파편화시키며 인간의 삶을 비인간화시키는 기술지배사회의 도래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미디어 생태학이란 메타포는 언어, 기술, 현실, 인간, 문화 등의 관계를 전체론적으로 살피면서 도구적 매개체 이상의 의미를 가진 미디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포스트만은 생물학적 메타포를 통해 자신의 전체론적인 미디어론과 비판적 문제의식을 암시적으로 나타냈고 이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했다. 개념적인 차원에서 메타포의 암시적 힘을 이용하여 미디어의 영향력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각종 기술 발달과 함께 물질과 비물질, 문화와 자연, 기술과 생명, 인간과 비인간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러한 메타포 개념이 추상적, 개념적 차원을 넘어 물리적, 실질적 차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포괄할 필요가 생겨났다.

스티븐스는 포스트만이 미디어 생태학이란 메타포를 개념적으로만 사용하는데 그침으로써 “실질적인(substantive)” 미디어 생태학적 사고에 이르지 못했다고 비판한다.⁴⁸⁾ 포스트만의 미디어 생태학이 언어와 문화와 같은 의미론적 환경을 물리적 환경과 분리시켜 생각함으로써 실질적 차원을 포함하는 생태학 개념을 개념적으로만 쓰는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형이상학적인 언어의 세계(상징, 의미, 정보, 미디어 환경 등)와 물질적 비언어의 세계(영토, 현실, 자연 등)를 분리해서 생각하고 주로 언어의 세계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보았다. 스티븐스는 포스트만이 물질과 비물질을 나누는 서구 철학의 이분법적 전통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미디어 생태학을 개념적인 메타포로만 사용하게 되고 언어의 세계와 비언어의 세계를 분리해

47) Postman(1971), 139.

48) Stephens(2014).

병렬적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의 문제는 비언어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기술의 물리적 효과를 간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포스트만의 생태학 개념은 정보기술의 생산, 분배, 이용, 폐기 등이 물리적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환경적) 영향력을 보지 못하게 하고 (Maxwell & Miller, 2012), 디지털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물질과 비물질 간의 구분이 허물어지는 현재의 기술 세계의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미디어 생태학적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문화와 자연, 기술과 생명, 물질과 비물질, 인간과 비인간 등이 서로 다른 영역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포스트만의 미디어 생태학은 미디어의 메시지나 도구적 기능보다는 인간의 감정, 지각, 경험, 인식, 행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자체의 환경적 역할에 주목했다. 그런데 스티븐스는 포스트만이 미디어 환경의 형이상학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를 따로 떨어뜨려 보고 인간-이외의 커뮤니케이션 세계를 포함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생태학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스티븐스는 언어의 세계와 비언어의 세계 모두를 가로질러 전개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물질적 요소와 비물질적 요소간의 상호 연결성을 이야기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미디어 생태학적 사고를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가 말한 대로 미디어 환경을 물질적 그리고 비물질적 요소 간의 연결과 관계의 네트워크로 이해함으로써 미디어 기술의 물리적, 의식적 효과를 순차적 과정이 아닌 동시적 과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미디어 생태학이란 메타포를 개념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이고 물리적 차원으로 확장시킴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생태학적 접근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언어의 세계와 비언어 세계의 상호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주목해볼 수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미디어 생태학이 탐구해야할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스티븐스처럼 포스트만의 시각을 물리적 환경 자체를 고려하지 않은 ‘반생태적’ 접근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탈맥락적이고 편협한 이해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포스트만이 미디어 환경의 특성을 언급할 때는 늘 상징적 형식뿐만 아니라 물질적 형식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형식의 차이로부터 이데올로기적 혹은 인식론적 편향성에서부터 시공간적 혹은 사회관여 방식의 편향성을 발견해간다. 또한 그는 미디어 생태학을 ”개인과 현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집단과 문화, 문화와 문화 간 상호작용“의 커뮤니케이션 맥락을 이해하는 분야로 바라봄으로써, 미디어를 이러한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두 개 이상의 별개 요소를 연결시키는 ‘행위자’로 주목하고 있다.⁴⁹⁾ 포스트만의 미디어 생태학이 언어 상징, 교육, 문화 등의 관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미디어 환경을 자연 환경과 구분시켜 이해했지만 그렇다고 형이상학적 차원에서만 접근한 것은 아니다. 개인이 가지는 의식, 세계관, 느낌 진실 등이 형이상학적 고립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의 물질적 형식과의 연관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여기서 구성된 인식론과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은 물질적 현실 세계가 전개되는(커가는) 조건이 되고 있다.

한편 인간의 추상 능력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면서 18세기 계몽주의시대 사상을 주목한 포스트만의 시각은 인공 지능, 동물 지각, 인간과 동물간의 소통 등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와 배치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포스트만은 18세기 진보, 기술, 언어, 정보, 서사, 어린이, 민주주의,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주요 인물과 사상을 살펴보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고 인간적 전통과 연결되며 온전한 권위와 의미 있는 목적을 제공하는 미래 대처 방식”을 제시하려고 했다.⁵⁰⁾ 합리성에 근거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 활력과 확신과 희망의 원천이 된 진보 사상, 전근대적 신앙 체계와 근대적 믿음 체계의 공존, 도덕적 발전과 궤를 같이 했던 기술 발전, 한때 미국을 세계의 희망으로 만들었던 서사와 상징 등을 다루면서 “과거에 의미를 주고, 현재를 설명하며, 미래를 안내하는 인간 역사의 이야기” 혹은 “문화가 제도를

49) Postman(2006), 8.

50) Postman(1999), 11.

조직하고 이상을 개발하며 자기 행위에 대한 권위를 찾도록 돕는 원칙의 이야기”를 발견하고자 했다.⁵¹⁾ 21세기의 삶의 이정표를 18세기 문화적 유산에서 찾아보려고 했던 포스트만의 시도는 그의 미디어 생태학적 시각에서 비롯된다. 그는 계몽주의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며 이상화시키는 것 자체에 몰두하기 보다는, 합리적 사고, 도덕적 관심, 시적 통찰력, 인간적 감정 등이 어떻게 균형을 이루며 인간적 문화유산을 만들어나갔는지를 주목하고자 했다. 따라서 근대적 가치의 강조는 인간을 예외시하고 특권화 하는 반생태적 시각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기술의 지배력을 통제해보고 인간다움의 유산을 이어가려는 균형주의적 시각에서 나온다. 모든 실재가 숫자 형식으로 표현되고 효율성이 최고의 이상과 가치가 되어버린 테크노폴리 사회에서 언어 상징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인간다움의 유산을 이어가려는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 인간다움이 디지털 네트워크에 축적되는 통계적 수치와 디지털 정보로 취급되고 인간의 자연어가 기계어에 비해 효율성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폄하되는 기술지배사회의 현실에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어떠한 인간적 유산을 보존해야하는 가’는 중요한 생태학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미디어가 우리의 연장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기술 체계의 일부로 ‘사용’ 되면서, 그리고 기계어로 온전히 포섭될 수 없는 인간의 말이 가치와 의미를 잃어가고 이와 함께 인간의 가치도 퇴락하면서,⁵²⁾ 무엇보다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간성 자체가 퇴락되고 마지막으로 남게 된 외재적 미디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⁵³⁾ 포스트만의 균형주의적 문제의식은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언어, 상징, 서사, 문화적 의미 등이 탈가치화되고 기계의 지성이나 기술의 효율성이 우선적인 가치를 가지며 현실을 움직이는 환경이 되고 있을 때, 포스트만의 미디어 생태학적 시각은 이러한 상황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헤쳐 나갈 하나의 이정표를 제공한다.

51) Postman(1993), 172.

52) van der Laan(2012).

53) Kylmala(2012).

2. 포스트만식 성찰의 함의

컴퓨터 기술이 현실 세계의 모든 분야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브린올프슨과 맥아피는 우리가 지금 스팀 엔진이나 전기가 등장 했을 때와 버금가는 문명사적 변곡점에 와있다고 말한다.⁵⁴⁾ ‘제 2의 기계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자동기계, 스마트 기기 등 컴퓨터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건켈⁵⁵⁾은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인간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고 기술은 이러한 상호작용의 매개체 역할만 한다고 전제해왔지만, 이제는 컴퓨터 기술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면서 기계와 인간 혹은 기계과 기계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마노비치는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 나온 기법과 방법론을 인문적 텍스트를 분석하고 문화를 해석하는데 사용하자고 주장한다.⁵⁶⁾ 이렇게 비-인간인 기계를 타자로 받아들이고 컴퓨터 과학에서 끌어온 다양한 소프트웨어 도구와 기법을 문화와 사회를 해석하는데 활용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⁵⁷⁾ 과연 우리는 이러한 기술적 진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의미를 부여하며 탐구해야할 것인가? 포스트만의 미디어 생태학적 시각은 문명사적 변곡점에 선 우리에게 큰 통찰력을 제공한다.

포스트만은 기술낙관주의자도 기술혐오주의자도 아니고 ‘애정 어린 저항 운동가(loving resistance fighter)’이다. 현재의 테크노폴리 사회를 비판하고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애정을 가지고 되돌아보지만, 기계를 쓰지 말자거나 때려 부수자고 주장하는 것도, 18세기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54) Brynjolfsson & McAfee(2014).

55) Gunke(2012).

56) Manovich(2009).

57) Hall(2013).

오히려 작금에 팽배한 비인간화, 반이성주의, 기계주의 등의 지배력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근대적 이성주의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무엇이 인간의 역사를 움직여왔는가,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 등의 진지한 질문에 대한 포스트만식 답변이다. 포스트만은 이러한 질문을 미디어 생태학적 시각을 통해 ‘성찰’하고 그 답변으로 인간다움을 구성하는 인문주의적 ‘의미 체계’를 계승해가자고 제안한다. ‘성찰(reflection)’이란 단어는 원래 라틴어로 ‘reflectere’로서, ‘뒤로’라는 의미를 가진 ‘re’와 ‘굽히다’라는 의미의 ‘flectere’가 합쳐진 단어이다.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물이나 유리에 반사된 이미지를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가 인쇄문화가 전개되면서 주제에 돌이켜 생각해보면서 나온 발언이란 뜻까지 포함하게 되었다.⁵⁸⁾ 따라서 성찰의 의미는 인쇄문화의 심도 깊은 사려, 고요함, 고독, 생각에 잠기기 등을 함축하게 된다. 로즈는 이러한 성찰이 특정한 문제를 푸는 분석적, 도구적 행위가 아니라 고독과 느낌 속에서 생기는 깊은 사고의 형식으로서, 종합적이고 전체론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포스트만은 의미를 추구하지 않는 기술 사회에 대해 전체론적으로 사고해보면서 기술 사회에 대해 성찰해보는 방식을 알려준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하는 방식처럼 정해진 방식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 현상을 문명사적으로 종합하고 생태학적으로 접근하면서 의미를 발견해나가고 한다.

포스트만의 미디어 생태학적 성찰은 주로 미국 사회 그리고 미국에 이민 온 유대 가정의 자손이라는 개인사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의 성찰 방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맥락과 미디어 환경에 대한 이해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기술로부터 국가의 성장 동력을 발견하고, 기계어를 학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하며, 뒤처지지 않고 앞서가기 위해 새로운 기계를 끊임없이 구입하고 사용해야하는 우리의 현실은 미국의 그것

58) Rose(2011).

과 그리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 사회에 던졌던 포스트만의 미디어 생태학적 질문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은 특정 미디어 현상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나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논리적 사고보다는, 변화하는 일상에 대한 조용한 관찰과 숙려, 그리고 관계들의 전체 그림에 대한 직관적 성찰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 인식하기 어려운 미디어 환경의 성격을 이해해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건 짓는지를 살펴보면서 과연 이러한 환경의 기술적 헤게모니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과연 우리 사회에 이러한 기술적 발전 과정은 불가피한 것인지, 우리는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어떠한 행위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러한 행위성의 도덕적, 윤리적 기반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일상적 삶 속에 우리는 미디어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떠한 미디어 환경이 인간적인 삶을 살기 위한 적절한지 등을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포스트만은 이러한 질문하기를 독려하고 있고,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을 구하는 탐구와 성찰은 우리의 몫으로 남아 있다.

참고문헌

- Brynjolfsson, E. & McAfee, A.(2014), *The second machine age: Work, progress, and prosperity in a time of brilliant technologies*, New York: W. W. Norton & Co, 이한음 역(2014), 『제2의 기계 시대 : 인간과 기계의 공생이 시작된다』, 서울: 청림출판.
- Chandler, D.(2000), *Technological or media determinism*, Aberystwyth University, Online: <http://www.aber.ac.uk/media/Documents/tecdet/tdet01.html>
- Gunkel, D. J.(2012), “Communic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Communication +I*:1.
- Ellul, J.(1964). *The technological society*(J. Wilkinson, trans.), New York: Vintage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54), 박광덕 역(1996), 『기술의 역사』, 서울: 한울.
- Gencarelli, T.(2006), “Neil Postman and the rise of media ecology”, In C. Lum (Ed.), *Perspectives on Culture,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The Media Ecology Tradition*, 201~254, Cresskill, NJ: Hampton Press, 이동후 역(2008), 『미디어생태학사상』, 서울: 한나래.
- Hall, G.(2013), “Towards a post-digital humanities: cultural analytics and the computational turn to data-driven scholarship”, *American Literature*, 85(4): 781-809, Online: <http://dx.doi.org/10.1215/00029831-2367337>
- Innis, H. A.(1950), *Empire and commun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김문정 역(2008), 『제국과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Innis, H. A.(1951), *The bias of communication*. Toronto, Canada: University of Toronto Press.
- Kylmala, T.(2012), “Medium, the human condition and beyond”, *Empedocles: European Journal for the Philosophy of Communication*, 4(2): 133-151.
- Manovich, Lev.(2012a), “Trending: The Promises and the Challenges of Big Social Data.” In Gold, *Debates*, 460-475,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axwell, R. & Miller, T.(2012). *Greening the medi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cLuhan, H. M.(1964),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New York: McGraw-Hill, 김상호 역(2011), 『미디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 Mumford, L.(1934), *Technics and civilization*,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Ong, W.(2002), *Orality and literacy: The etechnologing of the word*, London: Routledge,

- 이기우, 임명진 역(1996),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서울: 문예출판사.
- Postman, N.(1970), “The reformed English curriculum”, In A. C. Eurich (ed.), *High school 1980: The shape of the future in American secondary education*, New York: Pitman.
- _____ (1976), *Crazy talk, stupid talk: How we defeat ourselves by the way we talk and what to do about it*, New York: Delacorte Press.
- _____ (1979), *Teaching as a conserving activity*, New York: Delta
- _____ (1982), *The disappearance of childhood*, New York: Delacorte Press.
- _____ (1985), *Amusing ourselves to death: Public discourse in the age of show business*, New York: Viking, 홍윤선 역(2009), 『죽도록 즐기기』, 서울: 굿인포메이션.
- _____ (1988), *Conscientious objections: Stirring up trouble about language, technology, and education*, New York: Alfred A. Knopf.
- _____ (1992), *Technopoly: The surrender of culture to technology*, New York: Vintage Books, 김균 역(2001), 『테크노폴리』, 서울: 궁리.
- _____ (1996), *The end of education: Redefining the value of school*, New York: Alfred A. Knopf, 차동춘 역(1999), 『교육의 종말』, 서울: 문예출판사.
- Postman, N. (1999), *Building a bridge to the 18th century: How the past can improve our future*, New York: Alfred A. Knopf.
- _____ (2006), “The humanism of media ecology”, In C. Lum (Ed.), *Perspectives on Culture,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The Media Ecology Tradition*, 61~70. Cresskill, NJ: Hampton Press, 이동후 역(2008), 『미디어생태학사상』, 서울: 한나래.
- _____ (2006), “Media ecology education”, *Explorations in Media Ecology* 5(1): 5~14.
- Postman, N. & Powers, S.(1992), *How to watch TV news*, New York: Penguin Books.
- Postman, N. & Weingartner, C.(1966), *Linguistics: A revolution in teaching*, New York: Delta.
- _____ (1969), *Teaching as subversive activity*, New York: Delacorte Press.
- _____ (1971), *The soft revolution: A student handbook for turning schools around*, New York: Delacorte Press.
- _____ (1973a), *How to recognize a good school*, Bloomington, IN: Phi Delta Kappa Educational Foundation.
- _____ (1973b), *The school book: For people who want to know what*

- all the hollering is about*, New York: Delacorte Press.
- Postman, N., Weingartner, C., & Moran, T. P.(eds.)(1969), *Language in America: A report on our deteriorating semantic environment*, New York: Irvington Publishers.
- Rose, E.(2013), *On reflection: An essay on technology, education, and the status of thought in the Twenty-first Century*, Toronto: Canadian Scholars' Press.
- Shannon, C. & Weaver, W.(1949), *The mathematical theory of communication*. Urbana, IL: Univ of Illinois Press.
- Stephens, N.(2014), "Toward a more substantive media ecology: Postman's metaphor versus posthuman fu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8: 2027-2045.
- Stenven, J.(2006), *Against technology: From the Luddites to Neo-Luddism*, New York: Routledge.
- Strate, L.(1994), "Post(modern)man, or Neil Postman as a postmodernist", *ETC: A Review of General Semantics*, 51(2): 159-170.
- _____ (2003), "Neil Postman, defender of the word", *ETC: A Review of General Semantics*, 60(4): 341-350.
- _____ (2014), *Amusing ourselves to death: Neil Postman's Brave New World revisited*, New York: Peter Lang.
- van der Laan, J. M.(2012), "Language and being human in technology", *Bulletin of Science, Technology & Society*.

Abstract

This study revisits Neil Postman's media ecological perspective to reflect upon our attitudes toward and beliefs about technology. Postman was an American educator, media theorist, and public intellectual who first introduced the notion of media ecology in 1968. He tried to identify scholars from various disciplines who were interested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language, media, and culture as media ecologists and to address issues in American society through a media ecological perspective. This study discusses how Postman conceptualized media ecology, what kind of approaches he suggested for its research, and why he cannot be regarded as either a Neo-Luddite or a media determinist. His media ecology provides balanced and humanistic insight into our technological society, which tends to devalue human language, symbols, narratives, and cultural meanings and to prioritize machine intelligence and technological efficiency. Postman, as a “loving resistance fighter,” taught us how to reflect upon our relationship with the media environment as well as our agency in that relationship.

【Keywords】 Neil Postman, Media Ecology, Media Environment, Metaphor, Technopoly

논문 투고일: 2014. 10. 11

심사 완료일: 2014. 10. 17

게재 확정일: 2014. 10. 17